중소 · 벤처 유통업체들 미 판로 개척 지원

중소기업청(청장 유창무)은 서울 목동 행복한세상백화점과 공동으로 중소 · 벤처기업이 직접 미국 현지 유통체인 본사를 방문해 구매상담을 실시하는 제3차 소매유통체인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20일까지 인터넷(http://www.ihappy.co.kr)이나 전화(02-6678-9622)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업간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기술연구회' 사업 추진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과 기업간 교류 등 기술클러스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연구회'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조합과 협회 등 업종별 단체와 대학, 연구기관이 대표회원이 돼 기술연구회를 구성하고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기술연구회에 참석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형태다. 중기청은 지난해 14개 기술연구회를 선정해 지원했고, 오는 27일까지 신규 기술연구회 신청을 받는다.

병무청, 연구원 병역특례 3000명으로

병무청(청장 김두성)은 이공계 출신자를 우대하고 산업계 연구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대체복무(병역특례) 대상 전문연구요원을 3000명으로 올해보다 500명 늘리기로 했다.

또한 현재 석사학위 이상으로 돼 있는 대체복무자격을 석박사 통합과정 입학자에게도 부여하기로 했다. 전문연구요원을 활용한 연구 활성화를 위해 이들의 해외연구 등 공동연구기간을 현재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산자부, 산업기술 개발에 5년간 10조 6000억 투입

산업자원부(장관 윤진식)가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산업기술 개발과 산업기술 기반조성사업에 총 10조 6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산자부는 지난 2일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안)' 의 공청회를 열고 이처럼 발표했다. 산자부는 산업기술개발에 6조7000억원, 산업기술기반조성에 약 4조원을 각각 투입키로 했다. 산자부가 5개년 계획안을 추진하면서 쏟는 투자액은 민간투자를 합할 경우 15조 6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벤 · 처 · 이 · 슈

디지털타임스

박 재 권 산업과학부 기자

다시 '벤처'를 얘기하자

▲ 지난 11월 28일 열렸던 '무역의 날' 행사에서는 수많은 벤처기업들이 각종 훈장과 수출탑을 수상, '벤처가 희망'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했다는 내용의 취재파일

〈 2003년 11월 27일자 디지털타임스 오피니언면 〉

전자신문

대기업-중소·벤처 지재권 분쟁 과열

국내 우수기술 "겨울잠 잔다"

대기업서 각종 소송 제기…사업 존폐 위기

무분별한 소송제한·재판기간 단축 등 절실

▲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간 지적재산권 분쟁으로 국내에서 개발한 우수 기술이 사장되고 있으며, 특히 중소벤처기업은 분쟁이 일어날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도한 기사

〈 2003년 12월 5일자 전자신문 5면 〉